

# “불교가 한국사회 희망 되자”

## 한국불교종단협, 신년 하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신년 하례법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사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종단협은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012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회가단체 및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 등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또 “불자들은 이런 사회 현실을 위무하고 희망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의 한국사회에 이고득락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과 중생들에게 희



각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협 신년하례회가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망의 빛을 전해야 한다”며 불자들이 눈 밝은 수행자처럼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다.

종단협 부회장 무원 스님(전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기원사에서 “새해에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촉발된 위기와 불안의

국면이 남아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서 각종 견해와 요구가 표출될 것이다. 동체대비, 극기복례를 통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이어가는 평화와 화합이 응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

했다.

또 다른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도 신년인사에서 수행을 통해 혼잡한 현대 사회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불안한 경제 현실과 이질성만으로 정치적 선정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자리에서 우리를 주변 환경이 진실한 불국토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하례법회 동참 사부대중’ 발원문이 발표됐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는 불자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원문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낭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영롱한 빛에서 법문 들리는듯...

## 지관 스님 사리 공개

### 49재는 2월 19일 조계사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리가 공개되고 49재는 조계사에서 진행되기로 확정 발표했다.

1월 15일 서울 경국사에서는 지관 스님의 2차에 걸쳐 열려 망자와 세민 스님을 비롯한 종단 내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정치계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前 대표가 참석했다.

2차에서는 지관 스님의 망자와 세민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염불을 외우고 기도문을 올렸다. 일부 보살들은 지관 스님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는 듯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차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지관 스님 영전에 삼배를 올린 뒤 세민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이 먼저 절을 올린 뒤 마지막에 재가자들이 절을 올렸다. 손학규 前 대표도 신도들과 함께 절을 올렸다.

세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초재 때 사리를 공개하려다 준비 미흡으로 2차에서 공개하게 됐다. 치아가 고열에도 녹지 않아 치아사리와 원형 사리가 수습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영결식에서는 49재를 해인사에서 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큰스님께서 경국사에 오래 머무르셨고 49재 때 날이 추울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종단에서도 동의해 49재



2차에서 공개된 지관 스님의 사리

는 조계사에서 지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의 49재는 2월 19일이다. 2차 후에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지관 스님의 사리를 친견했다.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차를 기다려 모두 사리를 친견했다. 이날 공개된 사리는 치아 사리 5과와 원형 사리 3과 등 총 8과였으며 원형 사리는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신도들은 사리의 영롱한 모습에 감탄하거나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리를 친견한 한 신도는 “사리만 봐도 스님이 떠오르는 듯 존경스럽다. 참 신비롭다”고 밝혔다.

권순환 보살은 “젊어서부터 스님을 친견했었는데, 이제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사리를 보니 스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지만 학승이셨던 스님의 면모가 사리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관 스님의 사리는 49재까지 경국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동화사 금괴 있어도 ‘못 판다’

금괴 매장설로 곤혹을 치렀던 동화사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 됐다.

문화재청은 건축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9일 서울고궁 박물관에서 심의를 열었다. 심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은 동화사 발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동화사 대웅전이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됐고, 현상변경을 승인하기에는 신청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탈북한 김 모씨는 남한 출신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40kg 가량의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발굴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김 씨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동화사는 흑시 모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대웅전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한글의식 등 의례현대화 박차

###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후원사서 개원

한국불교전통의례를 전수하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학장 동주, 조계종 여산어장)이 1월 18일 개원했다.

서울 후원사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 중앙종회의원 도정·종민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교육원 인가 교육기관인 전통의례전승원은 학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학장 정오 스님(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 한글의례실무위원), 행자교육원 교수사 현준 스님,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사과정) 등이 지도한다.

학제는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2년, 기능과정 1년으로 불교의식 전수와 연구 뿐만 아니라 한글의례의식 연구 및 교육과정도 개설됐다. 전문과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는 수료작업도 전수 된다. 학장 동주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내리겠다는



한국불교전통의례 전승원 개소식에 여러 스님들이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다.

사명감으로 의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승원을 개원하게 됐다. 각 분야 전문가인 교수사 스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후학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승원 개원으로 불교가 가진 전통 의례를 전수하는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의례 복원 및 전수 뿐만 아니라 한글의식 등 현대화 등도 전승원 개원으로 크게 꽃 피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김포용화사, 지방의회와 예산 공방

### 교육·복지 예산 삭감 둘러싸고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맞붙

교육 및 복지 예산 삭감을 둘러싼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와 김포시의회의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본지 870호 2면 참조)

김포시의회의는 1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화사와 시민단체

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포시의회 정하영 조승현 유영근 신명순 의원이 참석했다.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4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교육·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은 용화사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정화조 설치는 당초 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한 의원들을 규탄했다.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무엇이 부끄러워 본질을 숨기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밝힌 예산편성 원칙이 강제 조항이 아님에도 공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용화사와 시민단체들은 “일괄적인 변명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의원들이 소수와 약자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도제 스님, 마주협 상임 대표 선출

### 2012년 정기총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이 상임공동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2012년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마주협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광주 김상사 주지 도제 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도제 스님은 “김상사가 있는 광주에도 숙제가 많이 남았는데 마주협 상임대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8개 단체의 대표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주협은 올해를 조직 안정과 회원단체와의 연대 강화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계



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마주협은 지역 간담회,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샵, 이주민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마주협은 또 정관개정을 통해 단체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주협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정 스님이 공동대표로 참석하고 사회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내부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명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기범·주성원 기자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제천선신 오희,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망부도 왕생정토,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없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 강건 육근정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벳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범륜, 범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법구**입니다.

사찰 불법력 성취원할 때 · 불사 신도번창을 발원할 때  
사업, 장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이,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하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만하고 뒤송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 x 세로 33cm x 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룡다원, 가격 | 180,000원(사할스님 20%할인)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

음마니반에홍 영꽃 **윤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윤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윤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윤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활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윤장대 사이즈 | 높이 17 x 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 x 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할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룡다원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